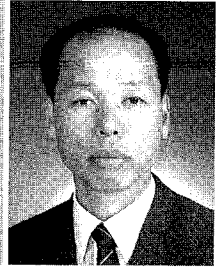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전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 부의장 장갑수

1957년 전남 곡성생. 조선대 졸.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 부의장
현 조선대학교 교직원

1984년 11월 18일,
우리는 광주 YMCA 백제실에서 힘찬 결의를 하였다.
198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투쟁을 기치로 내건
최초의 공개 대중운동 단체인
전남 민주청년운동협의회(이후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으로 개칭)의
깃발은 이렇게 올려졌다.

1980년 5월의 좌절로 침체해 있던 광주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전남도청 옆 감자탕 집에서 소주잔을 놓고 울분을 토로하다 공허한 마음으로 귀가하곤 했던 역전의 용사들이 패배주의를 딛고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바로 1984년 5월이다. 5·18 구속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속자협의회를 만들면서부터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5월달에는 5월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망월묘역을 참배하기도 힘들었다. 5월 18일날 망월묘지에 가기 위해서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찰을 피해 몇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가곤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틀만 갖추는 것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

러 어른들과 젊은 청년들이 함께 구성한 구속자협의회는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이제 우리도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그 동안 암중 모색을 해오던 청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학생운동을 해 왔던 선후배들, 5·18로 구속되었다가 출감한 용감한 투사들이 그들이었다. 5·18로 구속되었다 나온 정상용 선배, 김종배 선배, 정용화 선배, 그리고 학생운동을 했던 신영일, 송재형, 이춘희, 장갑수를 비롯한 광주지역의 젊은이들이 모여 선도적인 정치투쟁을 해나갈 단체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는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장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84년 11월 18일, 우리는 광주 YMCA 백제실에서 힘찬 결의를 하였다. 밖에서는 경찰이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어서 사뭇 비장함이 넘쳐흐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198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정치투쟁을 기치로 내건 최초의 공개 대중운동 단체인 전남 민주청년운동협의회(이후 전남 민주주의청년연합으로 개칭, 이하 전청련)의 깃발을 이렇게 올려졌다.

서울에서는 1983년 학생운동 출신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 결성되고 나서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같은 조직이 꾸러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 때 광주에서 전남 민주청년운동협의회가 먼저 깃발을 세운 것이다.

전청련은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한편으로는 5월의 만행을 폭로하거나 수많은 인권탄압 사례를 알려 군사독재정권을 퇴진시키려는 정치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중 신문인 '광주의 소리'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기관지 '광주'를 통해서도 지역운동론을 제기하였다. 서울 중심의 운동에서 지역의 주체역량을 강화하여 전체 운동을 성숙시켜 나가자는 취지의 지역운동론은 아직은 역량이 미약한 각 지역운동에 활력을 주고 지역 활동가들에게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다.

지역내에서의 연대활동을 중요시한 전청련은 전남 사회운동협의회(이하 전사협)가 창립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1984년 12월 8일 기독교농민회, 가톨릭농민회와 5월 단체들(5·18유족회, 5·18부상자회), 기독교청년협의회 등의 단체가 참여한 전사협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단체 사무실도 광주 YWCA 6층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 연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이러한 기세는 1984년 연말을 보내면서 마련한 전사협 주최의 '84 결산보고대회 및 송년 잔치'에 500여명이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힘들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날 모임은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도 1984년 하반기와 1985년에 이르는 동안 지역 단위 운동들이 하나 둘 건설되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전주, 대전, 인천, 대구, 마산, 부산, 춘천 등지에서 그 동안 흩어졌던 역량을 모아 지역운동 단체를 속속 결성하였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그리고 1985년 3월 민중민주운동협의회와 민주통일국민회의가 통합하여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이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민청련과 개신교 단체가 불참하고 지역조직도 아직 미미한 상태라 성명서 발표와 농성투쟁의 형태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되지만 전국의 운동 단체가 연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

각 부문과 지역의 운동역량이 결집되고 민통련이 차츰 정비되면서 민통련 조직의 근간은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이 양 날개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광주·전남에서는 전청련이 민통련의 논의구조에 참여하게 되었다.

민통련 중앙위원회 형태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주로 현안 정치투쟁에 대한 사항과 민중운동에 대한 지원책들이 논의되고, 각 부문이나 지역운동단체들의 활동들도 공유되는 시간을 갖곤 했다. 회의에 참여하는 중앙위원들 중에는 수배자도 많고, 공안당국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밤 시간에 그것도 은밀한 장소에서 모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각 지역에 결성된 지역운동단체들은 민통련 지역운동협의회(이하 지운협) 형태로 독자적인 협의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끈끈한 동지애가 형성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민통련 지운협의 가교 역할은 항상 이명식 간사(나중에 조직국장)가 맡았다. 성격도 무던한데다가 워낙이 성실하여 굿은일 좋은일 가리지 않고 각종 유인물 배포나 연락 등을 맡아왔던 이명식 간사는 지역운동단체에서 가장 인기있는 사람이었다.

지운협은 회의도 회의지만 마지막에 벌어지는 술판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해주었고, 항상 긴장감 속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에게 여유를 가져다주었다. 인천의 이호용, 이우재, 홍성복, 서울민통련의 홍순우, 춘천의 최윤, 청주의 김형근, 대전의 강구철, 이준희, 대구의 이강철, 권오국, 남영주·김균식, 부산의 김재규, 이호철, 마산의 배설남, 전주의 이광철, 광주의 신영일, 송재형, 장갑수 등이 당시 지운협에서 얼굴을 맞대며 활동했던 사람들로

기억된다.

특히 민통련이 지역운동단체와 함께 가장 조직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것은 개헌투쟁이었다. 1985년 하반기부터 전개된 개헌투쟁의 열기는 급기야 야당으로까지 확대되어 천만인 개헌서명운동과 개헌추진본부를 결성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1986년 3월 신민당의 개헌추진본부 현판식을 계기로 그 열기는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3월 23일 부산에서 열린 신민당의 개헌현판식 집회는 예상을 뛰어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바로 다음 순서는 3월 30일 광주다. 부산집회가 끝난 직후 전청련에서는 3월 30일 광주 집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그 때 모일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하여 민주헌법쟁취투쟁으로 끌어올리자고 결의를 하였다.

우리의 예상대로 신민당의 광주개헌현판식에는 엄청난 시민이 몰려들었다. 도청앞 광주 YMCA에서 열렸던 집회는 도청앞 광장과 금남로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짧은 신민당의 개헌추진현판식이 구름떼처럼 몰려든 대중의 열기를 가라앉히기는 역부족이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사전에 준비한 전청련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회가 끝나자마자 지금은 고인이 된 전청련 홍보부장 신영일이 YMCA 3층 옥상에서 대중을 선동하기 시작하여 이날 투쟁은 금남로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서 저녁 10시까지 전개되었다.

이날 사건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전청련의 회원 세 사람은 구속되고 간부인 신영일, 김전승, 정순철 동지가 수배되었지만 개헌투쟁의 열기는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3·30 투쟁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전청련에서는 앞으로 각 지역에서 열릴 신민당개헌현판식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시위를 주도해 나갈 것을 민통련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광주의 3·30 투쟁은 민통련 중앙위원회에 보고되고, 여기에서 민통련 본부와 각 지역단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자고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4월 5일 대구, 4월 19일 대전을 거치면서 민통련은 조직적으로 개헌투쟁에 참여하였다.

특히 민통련에서는 5월 3일 인천집회를 정권까지 퇴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전국 조직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인천집회에 모인 시민들을 끌고 서울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려던 민통련의 계획은 집회 시작 이전부터 화염병과 돌맹이들이 난무하는 시위가 전개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민통련 간부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라는 탄압국면을 맞게 된다.

정권의 극렬한 탄압은 박종철 고문살해로 이어지고, 4·13 호헌조치 발표로 이어지면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민통련은 이 때 야당까지를 포함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

동분부를 결성하여 결국은 6월항쟁을 이끌어내었다.

전청련은 6월항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87년 3월에 그 동안의 학생운동 출신의 소수 활동가 조직에서 일하는 청년의 삶을 옹호하고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룩해 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6월 항쟁을 맞았고, 대통령선거투쟁까지 전개했지만 또다시 군사 정권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민통련 역시 대선의 후유증과 6월항쟁을 통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 역할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으로 넘기면서 역사의 뒀안길로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전청련은 이후 대중노선을 더욱 강화하여 취미별·직장별 모임을 강화하고, 청년학교를 개설하는 등 6월 항쟁 이후의 고양된 청년의 정치의식을 조직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1991년 그 명칭이 광주민주청년회로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전청련과 민통련.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선도적인 투쟁이 요구될 때, 지역과 서울에서 역사적 소임을 다했던 단체로 남을 것이다. 열심히 싸웠던 '그 때 그 사람들' 과 함께.